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타 직종에 비해 일하기 유리하다” “경력이 높을수록 남자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부한 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출판계에서는 더더욱 진부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출판계에서 ‘여성’은 ‘마이네’가 아니라 당당한 ‘메이저’인 셈이다. 물론 이 역시 기획과 편집, 디자인 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한 여성잡지는 여성 인력의 약진, 특히 출판계 여성 인력의 도드라진 활약을 이렇게 표현했다. “출판계는 여성을 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여성 인력이 전 분야를 꽉 잡고 있다.”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다. 개인적인 체감지수로 봐도 출판계에서 여성 인력은 중추적이다. 출판사에 자주 전화하는 사람이라면, 전화 받는 이의 옆에 아홉이 여성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게다. 전화가 돌고 돌아도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질 뿐, 남성에게 전화가 돌아가는 경우는 기물에 콩 나듯 한다. 그렇다고 한국 출판계에 남성 인력이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니다.

출판의 본령은 여성과 남성(남성과 여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출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좌표 역시 남성과 여성(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따라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출판저널>이 출판계 여성 인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성(性) 분류에 따른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출판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인력으로서의 역할’인 셈이다.

《안개속의 고릴라》의 작가이며 멸종 위기에 처한 산악 고릴라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다이앤 포시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과거 속에서 살기보다는 미래를 지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불황이라는 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출판계는, 다이앤 포시가 없었다면 멸종했을(?) 산악 고릴라의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한국 출판계는 지금, 과거 속에서 살기보다 미래를 지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추동하는 힘을 ‘더더욱’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글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